불자들의 가족을 찾습니다
ARS 060-700-0048
불교신문 법보시 후원(한통당 5,000원)

佛敎新聞

대한투어 daeseungtour
신성불교 불자들의 애틋시
여법한 순례
품격있는 여행
☎ 1577-0206 www.대승투어.com
1990년 1월 일 창간 주간제 발행

불기 2557년 10월 23일(2013년 / 장기 4346년 문력 9월19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955호

도로표지판·관광지도에도 승암산 없고 '치명자산'만…

(맬뷔山) (致命촢山)

전주시는 특정종교 명칭 일방적 사용 논란도 '모르쇠'

전주 승암산(맬뷔山)이 '치명자산 성지' 명칭 사용과 관련해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심체 규명에 나서야 할 전주시가 시민의 상식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방적 지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치명자산(맬뷔山) 솎솎山, 가톨릭 신자들 월한 산 성지' 명칭 사용에 대한 전주시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전주 도심 도로 표지판에 '치명자산 성지' 표기 관련 지적에 대해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언제부터 치명자산 성지라는 표지판이 설치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그런 표지판은 도로 개설과 함께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어 논란을 야기한 두 "치명자산 성지와 승암산이라는 명칭을 병기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혼란야나 불편을 겪을 수 있는 표지판을 옮겨 달라 지 못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담당자의 해명과는 달리 명칭을 병기해 표기한 도로 표지판은 단 한곳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가 특정종교의 고유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알"이라고 하면서도 "치명자산 성지"로 표기된 도로 표지판은 "전주시가 제작한 관광안내도 지도와 안내책자 등에는 승암산이라는 명칭이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도상에는 승암산 대신 "치명자산 성지"라고 표기돼 있어 혼선야 불러올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주시 또 다른 관단 남고산은 지명 그대로 지도에 표기돼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실제 '치명자산 성지'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상황부인 것에도 나왔다. 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전주시 관광지도에 승암산을 '치명자산 성지'로 표기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승암산의 명칭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지금껏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주시가 사업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묘비만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신빙성을 더해고 있다. 승암산 중턱에 위치한 동고사 주지 법륜스님은 "언제부터 가 전주 도심 곳곳에 승암산 대신 치명자산 성지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다"며 "단지 특정종교인들의 순교지였다는 이유로 대대로 내려오는 산의 명칭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종교계에선 입장을 취하려 하는 명정기관이 특정 종교색이 드러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것으로 밖에 간주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승암산이라는 옛 명칭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재훈 전북지사장

'승암산'이라는 본래 지명이 있음에도 전주시 도로표지판은 관련지도에는 '치명자산 성지'라는 특정 종교를 지칭하는 명칭을 버젓이 쓰고 있다. 시는 언제부터 표지판의 명칭이 바뀌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실각성을 더해고 있다.

로 표지판 설치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전주시가 제작한 관광안내 지도와 안내책자 등에는 승암산이라는 명칭이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도상에는 승암산 대신 '치명자산 성지'라고 버젓이 표기돼 사람들 전주시의 해명을 듣지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주시 또 다른 관단 남고산은 지명 그대로 지도에 표기돼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실제 '치명자산 성지'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상황부인 것에도 나왔다. 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전주시 관광지도에 승암산을 '치명자산 성지'로 표기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승암산의 명칭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지금껏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주시가 사업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묘비만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신빙성을 더해고 있다. 승암산 중턱에 위치한 동고사 주지 법륜스님은 "언제부터 가 전주 도심 곳곳에 승암산 대신 치명자산 성지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다"며 "단지 특정종교인들의 순교지였다는 이유로 대대로 내려오는 산의 명칭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종교계에선 입장을 취하려 하는 명정기관이 특정 종교색이 드러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것으로 밖에 간주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승암산이라는 옛 명칭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재훈 전북지사장

지난 18일 원해 심화사 관내에서는 무차, 방생, 소원과 화합, 용합이라는 불교정신문화를 잘 보여주는 '국행수륙 동해-신시대로 기자 ard5016@bulgyo.com

하늘과 땅 죽은자와 산자 모두의 평안을 기원하다

심화사 국행수륙대재

동해 상심사 국행수륙대재보존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부대중 20000여명이 동원한 가운데 경내에서 불교문화의식인 국행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수륙대재는 첫째 날인 18일 오전 10시 법요식을 시작으로 시련과 대령, 괘불이운, 조전점안, 쇄수결계, 시자단 등이 진행됐다. 이어 19일 설법, 20일 보문품 (금강경) 독송, 봉송점등을 끝으로 3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심사 국행수륙대재보존회장 원명스님(상심사 주지)은 인사말에서 "상심사를 중심으로 한 동해 상적지역은 우리나라 불교와 안정을 위해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며 "임진왜란과 6·25사변 등 국란으로 희생된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편도하는 국행수륙대재를 설행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상심사 수륙대재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건국과정에서 희생된 영혼을 위로하고 진혼굿 고려 성왕의 세력들을 묘원해 소멸, 화합하는 보슬을 보여주기 위해 태조 쉬대에 심왕(諶王)한 것이 시초이며 의례서인 (천지명양수륙재의궤)와 (수륙보제(水陸普濟)불법)(강원도 유한한(劉)씨 1560년) 에 의거해 3일 동안 설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해-신시대로 기자

부·실장 인사는 다음 주 마무리

34대 집행부 '나눔'으로 업무시작

10월31일 개미마을 봉사

11월 8일 취임법회 봉행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원기 시작인 오는 31일을 앞두고 종단이 새 집행부 구상에 착수했다.

우선 총무원 부실장 및 국장단 스님들은 지난 17일 오전 종무원의에서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이번 일괄사표 제출은 30일 원기가 종료되는 33대 집행부를 마무리 하고, 새롭게 34대 집행부 인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새 집행부 인선은 이르면 다음 주 중순인 23일경 마무리 될 것으로 전해진다.

34대 집행부의 원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31일, 총무원은 종단운영 8대 기조 중 하나인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리나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33대 취임 당시 원장 피해자들을 위문하는 것으로 공식행보를 시작했던 총무원장 스님이 34대에서도 자비행으로 원기를 시작하는 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오전 총무원장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원들은 조계종 행해 새 집행부 시작과 함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사찰 홈페이지 개미마을을 찾아갈 계획이다. 개미마을은 총무원장 스님이 지난 2010년 취임 1주년을 맞이 방문했던 곳으로, 30여 가구에 연탄과 쌀을 후원한 바 있다. 이날도 총무원장 스님과 교역자 스님 및 일반직 종무원 200여명은 이날 겨울을 앞둔 지역주민들을 위해 연탄과 쌀을 나눠 줄 예정이다.

한편 총무원은, 오는 11월에 오후시 조계사에서 제34대 총무원장 취임식을 별도로 개최한다.

어현경 기자 eunkanok@bulgyo.com

선본사, 아름다운동행에 1억원 쾌척

아프리카 학교 건립 승려노후복지에 사용

갯바위부처님으로 유명한 선본사가 아프리카 학교 건립과 승려노후복지를 위해 화성을 보탰다. 경선 선본사(주지 덕본스님·사진)는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갯바위 약사여래 연화광좌' 조성 불사를 통해 모금한 것으로, 남은 기금은 아프리카 학교 건립과 승려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인 혜무원장 자승스님은 "선본사가 전달해 준 기금은 아프리카 학교 건립과 승려노후복지에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며 "일자리 약교 준공식 때 주지 스님과 신도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덕본스님은 "해년 기금을 조성해 가부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신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규 기자 ytae1118@bulgyo.com

정기종정종회 11월1일 개원

10월25일까지 개원식 봉행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광덕스님)가 오는 11월1일 오전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96회 정기법회를 개최한다.

15일간 열기로 알려는 이번 정기회에는 스종법 제개정의 건 , 불가사의한 제2기 조계종 예산 편성의 건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추대의 건과 대종사 법계 등의의 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정기회에 앞서 10일부터는 오는 25일까지며, 종책질의 마감은 27일까지다. 어현경 기자

한 줄

제3회 전국 금강경장송대회

1월 31일 접수마감

"모셔서와 성찬 그윈도일" 금강선문이 불교신도회 함께 대한불교조계종 소대경전 (금강경)의 장중을 올바로 이해하고 넓리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국 금강경 강송대회를 개최한다고. 한국 유일의 이 경전대회는 지난해 대상자 '조계종종무원장상'으로 격상돼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대회로 성장해 주목대 대중에게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 ■ 일 정 : [원기년] 1월 3일(토) 09:00~17:00
- ■ 장 소 : 반야다라밀대원(불교대학 강당 지하3층)
- ■ 공시대상 : 재가불자, 학생
- ■ 전 형 식 : 일반 분야별, 학생 부문(학생증 사본 첨부)
- ■ 구비서류 : 소정양식 지원서, 주민 등록 사 지원서에 사진(6×4)1매 부착, 전형료(일금 5 원수료)
  - 신청전형 : 100~이상 수험료(해당자 : 대한불교조계종금강선원 지원서 다운로드 : 한국기업정보센터(www.hanjeon.com)
- ■ 접수기간 : 2013년 9월 1일(일) ~ 10월 31일(목) 17:00
  - ※우편제한일 유효 : A4 크기, 신청서 하에 첨부
- ■ 접 수 처 : 금강선문 사무국(이동 건강구 개운동 186-3)
- ■ 시 간 : 대상자대상교도회원 준비위원장 : 10월31일 이외 회무수집, 주수상, 장려상, 각 부문별 주수상(최기, 상금, 이해도, 해원수기, 학생상
- ■ 시 상 식 : 20.30 11월(예정)

Tel : (02)3420-6884 Fax : 485-9840 E-mail : geumgangsa-dh@hanmail.net

■ 시험장소
- 예선 : 홀기 ~ 홀기)
- 홀기 : 조계종 종로 "금강선", 금강선원 법명 "금강장하수정" 보문 기관대 주중에서 경험된 분 홀기(보문)~기상 정오(0)
  - ※한국 불교 기 사 기상정오 (0)
- 설기 : 상승 일 이해도, 수행 실생한수 평가,
- 본선 : 예선 통과 상위주수자 대상으로 교재 정리공부.

중국 불사용품 전람회를 가다 7면

10·27 법난 33주년 기념식

1980년 전두환 국사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에서 최대의 수난사이자 한편으로는 한국불교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군인과 경찰 등 3만여 명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전국의 5천여 개 사찰을 군화발로 짓밟고 2천여 명의 스님과 불교신도들을 연행하여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했던 대표적인 탄압사례인 '10·27법난'이 벌어진지 벌써 33년이 흘렀습니다.

이에 '10·27법난'의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10월 25일(金)**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기념식 : 1부 기념법회
2부 추모문학예술제
- 시 낭송회
- 추모공연

▷ 문 의 : 02)2011-1824(대한불교조조계종 사회부)

2013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